

## [교환학생] 프랑스 EMSE(생테티엔 에콜데민)후기\_조선우

### 0. 지원하게 된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중인 조선우라고 합니다. 지난 18년 2학기에 프랑스 EMSE(생테티엔 에콜데민)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졸업하기 전, 여유가 있는 학부때 해외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서 4학년 2학기에 졸업을 한 학기 미루며 공대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MSE로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우선 평소 프랑스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프랑스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 중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중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EMSE가 우리학교와 협약으로 진행하는 대학원 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EMSE라는 학교를 경험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 출국 전

#### 1-1 서류

프랑스는 여러가지 서류처리가 굉장히 느린편이라서 대부분의 서류를 최대한 일찍 준비하고 서류처리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대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된 이후에는 다시 지원서를 작성하여 EMSE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7월 중반경에 나오게됩니다. 프랑스는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약 2달 이상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 결과가 늦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결과를 받기 전에 비자를 위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종 블로그들이나 네이버 '프잘사' 카페를 보시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있어 해당 글을 참고하시는게 비자준비에 확실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비자를 받기 위해 캠퍼스 프랑스에 면접을 1차로 보고 2차로 프랑스 대사관에 면접을 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때 성수기인 6월 7월경에는 캠퍼스 프랑스 면접예약이 모두 차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찍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랑스는 CAF라는 주택보조지원금을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한 서류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까다로운 편이고 비용도 어느정도 들기 때문에 교환학생기간이 길지 않다면 따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CAF는 기숙사 월세의 40%정도를 지원해 주기때문에(기숙사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프를 지원받기 전,후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서류준비시 필요한 금액과 비교하며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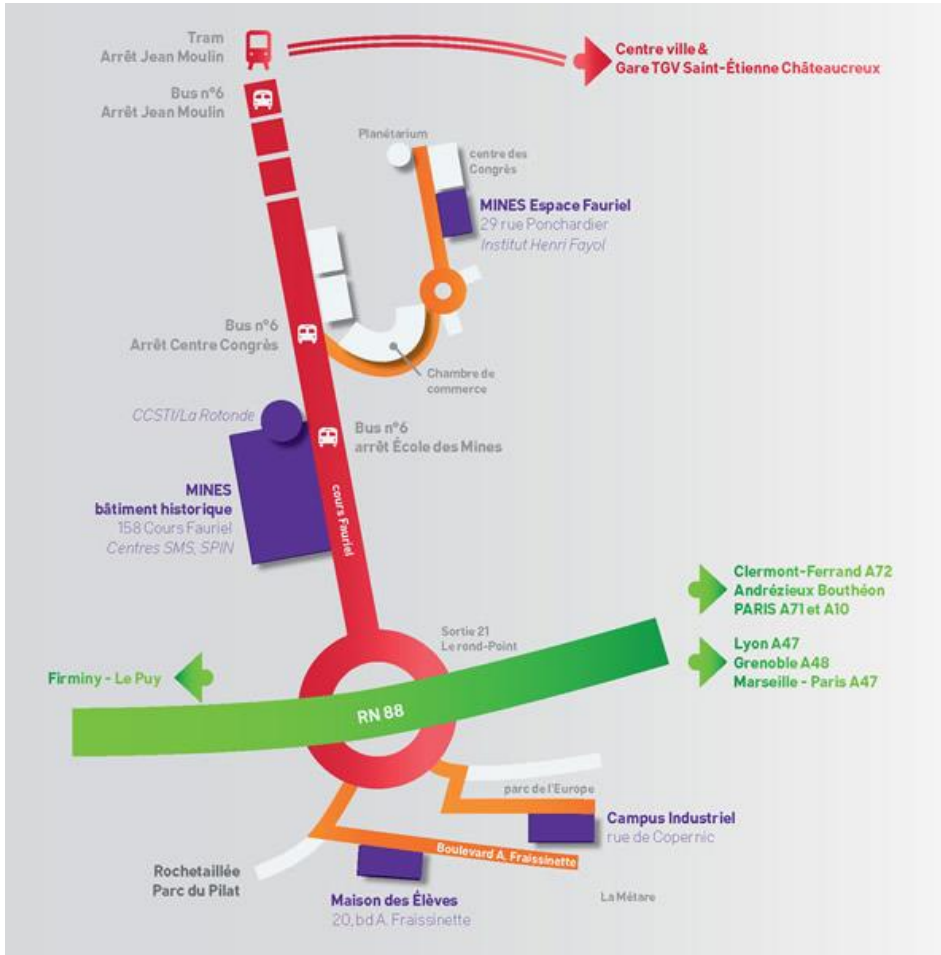
#### 1-2 기숙사

EMSE에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EMSE에서 기숙사를 한 곳 추천해줍니다. Maison des eleves 라는 기숙사인데 (학교 학생들은 ME라고 부릅니다) 학교와 가까운 곳(걸어서 10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등교가 편하고 학교학생들이 대부분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과 교류도 편하지만 생테티엔이라는 도시의 중심부와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장을 보는 등의 일을 할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도시중심부의 기숙사들과 비교해 요금은 평균보다 약간 비싼편이지만 개인 방 청소도 한달에 한번씩 해주시고 24시간 watchman 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행사들을 이 기숙사 또는 기숙사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교류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려면 해당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EMSE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 일부 학과는 도시 내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며 EMSE 건물이 도시 북부에도 있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는 수업 듣는 장소가 해당기숙사와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점들을 비교하여 기숙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2. 학교 및 교환프로그램 관련 정보

### 2-1) 학교

EMSE는 서울대학교처럼 큰 캠퍼스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 공학 그랑제꼴이라서 학교 건물이 3개 뿐이고 학생 수도 적은 작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라색건물들이 학교 건물에 해당하고 이 지도상에 있는 건물 외에 생테티엔 북부에도 한 개의 건물이 더 있습니다. (Maison des Eleves 가 학교에서 추천하는 기숙사 입니다.) 해당 건물 안에 한 층으로 도서관은 있지만 식당은 건물 안에 없고 학교에서 기숙사로 오는 길에 있는 사설 식당에서 학생할인으로 식사를 하거나 도시 중심부에 있는 다른 학교들의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2-2) 교환프로그램

공대교환학생에 합격하고 EMSE 지원서를 쓰게 될 때, 어떤 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MSE는 그랑제꼴 학위를 주는 학과와 master 학위를 주는 학과들로 나뉘어 있는데 그랑제꼴학위를 주는 학과는 ICM 과 ISMIN 이 있습니다. 이 두 학과 중 ICM만 생테티엔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이는 모두 프랑스로 진행되어 저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Master 학위를 주는 학과들은 모두 혹은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저는 이 중 Cyber Physical Social system(CPS2) 라는 학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환학생을 가게 되시고 프랑수를 잘 못하신다면 Master 학과들로 가게 될 텐데, 이 학과들은 모두 세계 각국의 여러 학교들과 석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석사과정 교환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 간혹 일본 친구들 중 저와 같은 학부과정 교환학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master 프로그램들은 학과마다 개강, 종강 일이 다르고 듣는 수업들도 학과마다 미리 정해져 있어 따로 수강신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CPS2는 교환학생들도 있을 뿐 아니라 생테티엔에 있는 여러 다른 학교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EMSE가 아닌 생테티엔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있었고 해당 대학의 교환학생들도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의 진행도 EMSE에서 뿐만 아니라 생테티엔의 다른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약 7개정도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 중 1개가 다른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CPS2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학생들은 20명정도였는데 실제 수업들은 EMSE의 ICM 혹은 다른 master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이 진행되었어서 수업마다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30명~40명 정도였습니다.

저도 master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식 master 프로그램은 2년의 프로그램인데 석사학위 교환학생들은 이 중 첫 1년을 건너뛰고 바로 2학년으로 들어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학부 교환학생의 경우 초반에 지원을 할 때 cps2 에서 master1으로 지원을 할지 master2로 지원을 할지 여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master1 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수업의 난이도는 훨씬 쉽지만(자료구조등의 컴퓨터 기초 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만나기 어려워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master2 로 진행을 하게 돼서 석사 교환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지만 수업은(web services, multiagent system 등)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돼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 3. 생활

#### 3-1 음식

프랑스는 외식비용이 비싼 대신 마트 물가는 매우 저렴합니다. 학식 같은 경우 적게는 4유로에서 6유로 정도 들어가는 반면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면 1kg 당 8유로 정도되는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주방에는 오븐도 하나씩 구비되어 있고 마트에는 오븐에 넣기만 하면 먹기 쉬운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식을 3번정도 사먹은 것 빼고는 거의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기숙사는 주방이 한층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공용으로 써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기는 쉽지만 음식을 하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층은 작은 주방을 2명이 공유하는 형식이어서 훨씬 요리를 하기 수월해 요리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 재료는 주로 기숙사 근처 까르푸, 카지노에서 사기도 하지만 시내에 있는 centre duex 라는 복합쇼핑센터의 auchen 이라는 마트(우리나라의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등은 auchen 보다도 일요일에 Bellevue 에서 열리는 marche(우리나라의 5일장 개념) 에서 사면 더 상태가 좋고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서 marche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빵이 맛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빵집이나 가도 다 맛있었지만 갈수록 눈이 높아져서 인지 기숙사 주변 빵집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시내 쪽에 Le Gruau Lorrain 이라는 빵집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국에서는 조각당 7천원정도 하는 케익등의 디저트류를 이곳에서는 반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디저트 가게로는 Le Nelson 추천드립니다.

생테티엔에는 1개의 아시안 마트가 있는데 이 곳에서 신라면 등을 1.2유로정도에 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도 팔긴 하지만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았고, 고추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음식이 그리울 것이 걱정되신다면 고추장정도를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 쌀등은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3-2 날씨

프랑스 중에서도 생테티엔은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 비교적 서늘하고 겨울에 눈이 자주 옵니다. 그래도 10월까지 좋은 날씨가 계속돼서 거리에 사람들도 많고 기숙사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가 되면 우기이기 때문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고 때로는 눈이 많이와 버스나 트램등이 운행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해야합니다. 온도 자체는 매우 낮지 않아 우리나라 한겨울의 추위보다는 덜하지만 기숙사에 난방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3 유심

첫 한달 간은 우리나라에서 산 유럽여행용 유심을 썼고 그 이후에는 free라는 통신사의 유심을 썼습니다. 프랑스에는 orange, free, bouygue 3개의 통신사가 있고 이 중 free와 bouygue가 저가 통신사인데 한우석 교수님이 free를 추천해 주셔서 free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Free 유심구입은 현지에 도착하면 한우석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이버블로그 같은 곳에도 자세히 나와있어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유심으로 유럽 전체에서 쓸 수 있으므로 여행다니기에도 좋았습니다. 와이파이는 학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snu-member같은 와이파이로 들어갈 때 학교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uroam도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인터넷이 되기는 하지만 와이파이 공유기는 따로 없기때문에 공유기를 들고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4 교통

시내교통, 즉 생테티엔 내의 교통은 버스와 트램이 있습니다. 종류와 무관하게 1시간 30분이용권이 1유로인데, 월 정기권을 사면 해당 월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27유로 정도여서 vacance가 없는 달에는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정기권은 매월 사야하기 때문에 월초에 사지 않으면 1회권을 매번 구입하셔서 사는 것이 저렴합니다. 1회권을 매번 티켓으로 살수도 있지만 처음 생테티엔에 도착했을 때 역에서 버스카드를 구매하여 버스카드에 충전하는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테티엔에는 서울의 따릉이 처럼 공유 자전거가 있는데 따릉이 보다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지만 1년에 5유로(?) 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이어서 (1시간마다 정류장으로 반납만 하면 됩니다) 구매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기숙사에서 기차역(chateaucieux역)까지 가는 길이 내리막이라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자전거도 같은 버스카드로 구매 가능한데 자전거 이용권 구매는 역에서 나와서 역을 등지고 왼쪽에 있는 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자전거 정류소마다 자전거가 몇대있는지등은 moovizy 라는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외교통, 즉 생테티엔에서 다른 도시로의 교통은 goeuro에서 버스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테티엔에 중앙역인 샤토크뤼(chateaucieux) 역에서 tgv 또는 그냥 열차등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가능하지만 몇몇 지역은 버스가 있을 경우 버스를 타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다른 정거장이 없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리옹공항에서 생테티엔으로 오려면 원래는 리옹공항에서 리옹까지 lyon express 를 타고 다시 리옹역에서 샤토크뤼역까지 기차를 타야하지만 한번에 샤토크뤼역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에 4~5대정도 있으므로 찾아보시고 맞춰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5 교류활동

교환학생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EMSE에 계시는 한우석 교수님께서 일본교환학생들과 연결을 시켜 주시고 해주시고 전에 교환학생들이 놓고 간 물건 등을 공유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밥솥이 있어서 일본친구들과 요리를 해먹으면서 친해지게 되어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EMSE에는 international student 모임이 있어 스누버디 처럼 교환학생 한명당 짝이 되는 현지학생(god mother라고 부르더라고요)이 있어 저는 초반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짝꿍학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학기동안 international student 학생회에서 4번정도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어주어 현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자체에 주마다 많은 행사가 있고 또 학기초에는 1주일에 한번씩 기숙사의 cercle 이라는 공간에서하는 각종 파티 등이 있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지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12월초쯤에 리옹에서 하는 빛 축제를 학교학생들과 같이 갔던 것과 10월 초쯤에 하는 조를 짜서 생테티엔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등의 행사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는 각종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저는 로봇동아리에 들어가서 몇 번 모임

에 나가서 간단히 납땜정도를 했었는데 교환학생기간이 짧아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친해졌던 일본친구들 중에는 운동동아리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ICM과정에 있는 현지친구들보다 같이 CPS2과정을 듣는 다른 석사교환학생들과 더 친해지게 됩니다. 저는 같이 CPS2 프로그램을 하던 친구들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 같이 집에 놀러가서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10월말에 있었던 vacance때 같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4. 수업

##### 4-1 수강신청

지원할 때 학과를 결정하시면 수업은 학과 커리큘럼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외에 수강신청은 따로 진행되지 않고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고정이 되는데, 제가 다녔던 학과 같은 경우 시간표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같은 반 친구들한테 시간

##### 4-2 수업

master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의 수업들은 2학기에는 인턴을 해야하는 것도 그렇고 수업들도 대부분 실제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7개정도의 수업을 들었는데, trust&privacy, web services, cloud computing, distributed and mobile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semantic web, multiagent Coordinate. 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직접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하는 수업 위여서 4학년 2학기에 마지막으로 듣는 수업들로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가장 인상적인 수업은 3개의 수업web services, distributed and mobile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분을 배우지만 최종 목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수업이 짜져 있어서 이러한 수업 구성이 서울대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구성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체 구현하는 것이 스마트 빌딩을 만드는 것이어서 해당 빌딩의 방마다 있는 조명을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수 있고 방마다 온도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web services 수업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웹의 backend 와 front end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 iot 수업에서는 아두이노로 조명과 온도감지센서등을 연결하여 이를 웹 서버에 연결해주는 것을 배우고 distributed and mobile computing 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서 해당 서버와 연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대에 있을 때는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코딩을 잘하지 못해서 초반에는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서 더 의미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 4-3 시험

7개 수업중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수업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를 구현한 것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말 시험이었고 나머지 4과목들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와 작은 프로젝트들이 평가항목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20점 만점에 절대평가입니다.

#### 5. 여행

프랑스의 가을학기는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 10월말에 1주, 12월말~1월초에 2주, 3월중에 1주 정도 vacance 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월말까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2번의 vacance 가 있었고 10월말에는 같이 교환학생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탈리아를 12월말에는 가족들과 북유럽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9월이나 1월말에는 수업이 일주일에 1개씩 있을 때도 있어서 중간중간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유럽내 저가항공이 많아서 아주 저렴하게는 편도 5유로짜리 비행기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에어가 특히 그런데 리옹공항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생테티엔과 리옹이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혹시 교환학생 중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생테티엔보다 툴르즈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툴르즈에는 공항교통도 좋고 라이언에어가 가는 도시가 더 많더라고요.)

#### 6. 마치며

4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은 저의 대학생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나며 글로만 보던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갔던 프로그램이 해당학교로 온 다른 교환학생들에게는 석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우석교수님과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